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도시와 자연, 사람을 이어주는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준비 완료

-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 2026년 상반기 준공 -

행복청은 행복도시 '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를 완료하고 건립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89억 원이 투입되는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1만 2060.78㎡(부지면적 1만 110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12월 시공사 선정 이후 2026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변환경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2021년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물 특화에 주력하였으며, 세부시설은 ▲주민센터, 노인문화센터, 보육시설 ▲공동육아 나눔센터, 청소년 미래인재센터, 문화의 집 ▲체육시설, 도서관 등입니다.

또한, 문화공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공개공지와 문화공원 사이의 단차를 없애 복합 커뮤니티센터와 문화공원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고, 공원과 연계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부의 중앙광장(link square)을 통해 각 시설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공간을 조성하여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접근이 쉬운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과의 유기적인 연계 이외에도 복합커뮤니티센터 내부의 목재 데크로 이루어진 공간과 다양한 식재의 옥상녹화, 나무와 돌 등의 자연 재료가 반영된 휴게공간 등 도시민의 휴식을 위한 친환경적인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도 돋보이는데, 먼저 중앙광장(link square)을 통해 주민센터, 노인문화센터,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각 시설로의 선택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별 분산배치를 계획하여 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중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부엔 복도 양쪽 부분 모두에 실이 위치하여 통풍과 일조가 균등하지 못한 중복도 형식을 최소화하였고, 외기에 면하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정을 계획하여 시각적인 공간감(空間感)을 구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도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습니다.



복합커뮤니티단지 조감도

성남갑 아파트? NO!!! 아파트도 맞춤시대

- 행복청, 도시특화사업으로 신개념 주거모델과 새로운 건축문화 선도
- 토지공급방식 개선 및 각종 공모 통해 단지별 고유특성과 개성 살려



“아무래도 초기 아파트들은 성남갑이 늘어선 것처럼 획일적인 느낌이 있었죠.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아파트단지 모습, 단조롭고 비슷비슷한 풍경들 중 하나였어요.”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개막하면서 직장인과 함께 서울에서 행복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겨온 공무원 A씨는 당시 도시의 첫 인상을 화상하며 말했습니다. “대규모 이주수요에 물량을 맞추느라 그랬겠지만 건물미관이나 도시경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행복도시 건설인 만큼 이주 초기, 특색 없는 도시외관에 A씨처럼 실망감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두 옛말.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당초 행복도시 건설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복청이 2013년부터 본격적인 도시특화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도시특화사업’이란 계획적인 경관관리와 주변과의 조화로인 연계를 위해 도시와 건축을 통합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행복청은 전문위원(MA)을 선정하여 차별성과 전문성을 더하고, 설계공모 및 사업제안공모 등을 통해 독창성과 우수성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현재 행복도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2-1생활권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필지 통합설계 및 단지계획 공모 등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 ‘혁신’

건축물은 도시의 ‘얼굴’로서 도시이미지와 품격을 나타냅니다. ‘아파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공동주택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단지의 모습이 도시의 얼굴은 물론 표정까지도 좌우하게 되는데요.

이에 행복청은 생활권마다 고유한 특성과 개성을 지닌 공동주택이 조성될 수 있도록 토지공급방식부터 과감히 개선했습니다. 주로 추첨이나 입찰 위주였던 기존 방식을 깨고, 설계공모를 통해 가장 우수한 설계안을 제출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개별 필지별로 건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필지를 묶어 통합설계함으로써 단지를 연결하는 순환산책로, 주민 공동시설의 집적화, 담장 없는 마을 등 공동체문화를 되살리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2-2생활권 ‘여성이 살기 편한 안전한 주거단지’

설계공모 통해 각자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아파트마을 조성

설계공모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수한 건축 디자인 개발과 효율적인 기능 배치, 공간 활용 등에 유용한 수단입니다. 특히 행복도시는 생활권별로 고유한 주제와 이야기가 있는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공동주택 주거모델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2-2생활권(새롬동)에 조성된 ‘여성이 살기 편한 안전한 주거단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1개 블록, 총 7,490세대로 이루어진 이 단지는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인근 공공시설, 공원과 녹지, 가로 등 다양한 공간에 여성특화 요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 등 편리한 보행을 위한 여성친화가로를 조성함으로써 경사와 단차를 최소화하고 보도의 유효 폭을 1.5m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적 감시와 중첩을 위해 학교와 공공청사, 근린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집약 배치 하였습니다.

2-1생활권(다정동)에는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타운’도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일체화된 옥탑디자인의 주거동이 있는가하면, 인접 주동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스카이크뮤니티)나 저층 순환형 생태 보행로, 보행자 휴게공간을 갖춘 복합편의시설 등이 마련되어 생활 속 탄소감축을 실천하게 합니다. 8개 블록, 총 7,28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생활권(해밀동)의 ‘복합커뮤니티단지’도 빠질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와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집적화한 ‘복합커뮤니티 센터’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시설과 광장, 공원 등을 더했습니다. 행복도시 최초 공공시설 통합설계를 통해 조성된 이 단지는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활용도와 효율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서로를 하나의 공동체 속 ‘이웃’으로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작년 3월 행복청이 실시한 시설만족도 결과에서는 주민과 학생 등 대상자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답하기도 하였습니다. 2개 블록, 총 3,100세대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음악, 미술, 연극 등 주민들의 창조활동을 지원하는 4-1 생활권(반곡동) ‘창조적 생태마을’, 보행 안전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6-3생활권(산울동) ‘보행자 커뮤니티’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도시특화사업 패러다임 ‘전환’... 디자인에 ‘기능’을 더하다

올해 들어 행복청은 도시특화사업에 디자인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행복도시 특화계획’에 따르면,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호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제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계획안 구상을 마친 5-2생활권 ‘케어팜(치유농업) 타운’은 각종 스트레스와 사회경제적 부작용 등으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다양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프로그램을 통해 힐링하고 여가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꾸려집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원활한 운영인력과 예산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세부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진행상황을 알렸습니다.

6-4생활권의 3차 ‘제로에너지타운’도 주목할 만합니다. 1,2차의 성과분석을 통해 단열 및 기밀성능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자금으로 에너지소비량과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 연말 구체적 청사진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걷고 싶은 마을거리’, BRT변 ‘편리한 생활기반’ 등 생활권 별로 다양한 테마의 다각적인 특화가 계획되어 있어 기대를 모읍니다.

이처럼 행복청의 도시특화사업은 단순히 외형적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까지 향상시킴으로써 도시본연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능적 특화요소까지 강화하면서 건축문화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행복도시에는 다리 하나하나에도 도시가 들어있다

- 행복성, 교량특화 설계지침 통해 독창적 디자인과 공법 적용
- 순 우리말 이름으로 각 다리의 고유형상과 상징 담아내

“의미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역사를 훑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표현하는 일이다” 베를린 유대박물관과 9·11로 무너진 뉴욕 세계무역센터 재건축 등을 맡아 세계적 건축가 반열에 오른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말입니다. 건축물의 기능이나 심미적 역할 뿐 아니라 그것이 함의하는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종시 일원에 조성 중인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도시를 포괄한 도시 명칭이 세상(世)의 으뜸(宗)이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세종대왕의 묘호에서 비롯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이에 도시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정부세종청사 등 공공건축물은 물론, 강을 건너는 다리 하나하나에도 도시철학과 상징을 담아내고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행복도시에 흐르는 강은 금강과 미호천. 이들을 가로지르는 교량(橋梁)은 도시의 남북을 잇고 아름다운 도심야경을 수놓는 주인공입니다.

행복청은 각 다리마다 특별한 명칭과 디자인, 공법 등을 적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교량특화 설계지침’을 수립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장대교량뿐만 아니라 모든 규모의 다리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 전반의 교량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 금강을 형상화한 ‘금빛노을교’

2023년 9월 현재 금강에는 1997년 건설해 리모델링한 금남교를 포함한 5개 교량과 보행교인 ‘이음다리’가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기대되는 장대교량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량 기둥들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경간(徑間)’이 175m로 국내 하이브리드 트윈아치교 중 가장 긴 ‘금빛노을교’입니다. 인근의 생태공원지구 및 하부 오토캠핑장 등을 고려하여 교각 수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며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를 잇고 있습니다. 개통되면 청주나 오송 등 인근 시도와의 접근성은 물론, 생활권간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교통흐름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의 아름다운 물줄기와 황금빛으로 물드는 노을녘을 형상화하여 하부 교각과 상부 아치가 물결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금빛노을교는 길이 925m, 왕복 6차로로 4생활권과 5생활권을 연결합니다. 인근 교량과의 조화를 위해 상부 구조 높이를 제한하고 하부를 특화한 역사적 형태로, 거대한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기 위해 예펠

탑 무게와 맞먹는 1만여 톤의 동바리 철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3월 대한토목학회로부터 ‘올해의토목구조물’ 금상을 수상하면서 그 구조적 우수성을 대내외에 인정받았습니다.

행복도시의 여타 교량들과 마찬가지로 금빛노을교에도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다리 내 전망대에서 호젓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금강의 일출과 일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의 나래짓 ‘학나래교’부터 매의 힘찬 날개 ‘아람찬교’까지.. ‘순 우리말’ 이름

현재 운영 중인 금강의 장대교량들은 각기 다른 공법과 디자인이 적용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 교량은 전망데크나 자전거도로 등 편의공간과 함께 독창적인 디자인을 살린 야간조명 등으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한 이벤트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리 하나 하나가 행복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국내 최초 V형 주탑에 빗살형태의 엑스트라도즈교(Extradosed)로 지어진 ‘학나래교(금강1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길이 740m, 폭 29m 복층구조로 하부에는 자전거도로가 지납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아침을 열며 나래짓하는 학의 군무를 형상화한 다리”로, “주행 시 V형 주탑이 시야 개방감을 극대화하여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학나래교

‘한두리교(금강2교)’ 역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탑에 곡선 설계가 도입된 사례입니다. 주탑의 비대칭 곡선이 뿔처럼 펼쳐져 있는 이 다리는 길이 880m, 폭 41m의 대교입니다. 다리 이름도 ‘크다’는

의미의 우리말 ‘한’과 ‘원’을 뜻하는 ‘두리’의 합성으로 붙여졌습니다.

차량보다 보행자를 중심으로 설계한 ‘햇무리교(금강3교)’도 빠질 수 없습니다.

길이 758m, 폭 38.5m 규모로 널찍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전망대, 쉼터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와 공연을 위한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원 형태의 무지개로 특히 길운을 상징하는 ‘햇무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한편, 금강과 미호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아람찬교(금강4교)’는 국내 최초 개방형 U형 고저주탑 사장교로서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 천연기념물인 ‘새매’가 도약하는 날개를 모티브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아람찬교

“다 계획이 있구나” 중소하천에도 입지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량 건설

미호천에는 2개의 장대교량이 지납니다. 5생활권과 6생활권을 잇는 BRT 도로상의 중로아치교인 ‘보름교(미호천1교)’는 행복도시 북측 관문을 상징합니다.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중로아치교의 성공적인 완공으로 국가 기술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름’은 바람 또는 희망의 옛말로, 보름의 달빛에 비는 소원과 희망을 아치형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다른 한쪽의 ‘들목교(미호천2교)’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이밖에도 행복도시의 중소교량은 하천별로 입지특성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테마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서양의 정원양식을 따르 제천의

교량이나, 우리나라 전통마을과 도읍지 이미지를 형상화한 방축천의 교량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대교량 건설 “행복도시에서 배우자” 전국서 벤치마킹

행복청은 도시건설 초기부터 색채,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등 도시경관과 밀접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통일된 도시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 가운데 금강과 미호천에 신설되는 장대교량들은 교량설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형식과 디자인상 중첩을 피하고 각자의 개성과 본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복도시에 건설되는 다리는 이름에서부터 타 도시와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순 우리말의 독창적인 다리이름들은 학술연구용역과 명칭제정자문위원회, 국민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전통과 역사, 문화,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을 담아냈습니다.”라며, “여기에 터키대안, 기술제안 등 각종 입찰과 공모를 실시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하고 행복도시 교량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행복도시의 장대교량들은 무엇보다 축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종합계획으로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에게 그 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주되는 전국의 장대교량 프로젝트 관계자가 행복도시 교량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앞 다투어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20세기 위대한 건축가 중 한 명인 프랭크로이드라이트는 “건축물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강을 건너기 위한 구조물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 아름다움으로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거나 산책로와 쉼터, 공연장이나 전망대 등 다양한 공간으로 변신하며 시민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햇무리교(금강3교)



한두리대교



보름교(미호천1교)

행복청, 행복도시 교통안전 협의체 출범

■ 6-3생활권 바른유 등 신설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등 논의

행복청은 10월 12일(목) 정부세종청사 6동 종합상황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남부·북부경찰서, LH 세종특별본부와 ‘행복도시 교통안전 협의체’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행복청은 2014년부터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행복도시 통학로 안전 TF’를 운영하여,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올해 8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컨설팅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협의체 운영규정을 마련한 후, 기존 ‘행복 도시 통학로 안전 TF’를 ‘행복도시 교통안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행복도시 교통안전 협의체’는 행복청과 관계기관이 함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내 교통 안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협의체이며,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행복도시 6-3생활권에 내년 3월 개교예정인 바른유등신설학교통학로 안전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지정 후 방호 울타리 및 고원식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행복청, 중·소규모 건설현장,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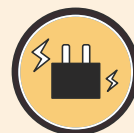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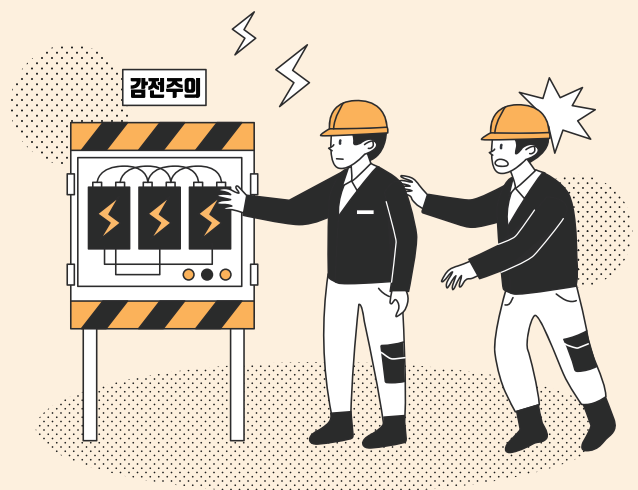
■ 행복도시 내 신규 착공한 5개 건설 현장에 대해 16일부터 교육실

행복청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안전·품질관리 교육」을 10월 16일(월)부터 10월 26일(목)까지 실시합니다.

행복청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매년 선제적으로 건설현장 정가·수시 점검 및 현장관계자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건설 현장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총 공사비 3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건설현장 안전·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23년도에 신규 착공한 중·소규모 5개 현장의 현장 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품질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행복청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여 △안전·품질·시공관리 △감리업무 △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 △계절별, 공종별 주의해야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현장별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행복이와 한글교시(10교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 ‘띠며’와 ‘띄며’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미소를 띠며 말하였다. (O)
- 미소를 띄며 말하였다. (X)

- ‘대화로써’와 ‘대화로서’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대화로서 갈등을 풀었다.
- 대화로써 갈등을 풀었다.



* 9교시 숙제 코너 정답

- 1번 :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2번 : 손등이 꺼슬꺼슬하다.

사자성어 배워가기

고 견 탁 론
(萬) (見) (卓) (論)

식견이 높은 견해와
탁월한 이론

- ①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1. 메시지 2. 메세지

- ② ‘스멀스멀’과 ‘스물스물’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아.
-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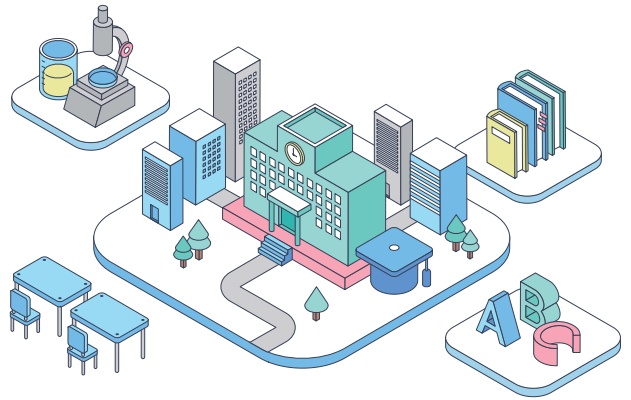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행복도시,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아래의 사진은 조선시대 왕들의 친필을 봉안했던
어서각(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일대를 보존·정비한 역사문화공간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을까요?



행정서비스 공간의 대변신! 우리 동네 문화공간과 사랑방 역할까지... “만 데 갈 필요 없어요”

- 주민센터,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한 자리에’
-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부터 공동체 구심 역할까지 ‘원스톱’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인간을 위한 건축이지 않으면 안 된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중 하나로, 모국 핀란드 화폐에까지 등장했던 ‘알바르 알토’가 한 말입니다. 전후 재건을 비롯한 도시화,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기에 활약했던 인물이지만 건축의 인본주의적 요소를 강조한 그의 말은 도시 전반이 고도로 발전한 오늘날에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알바르 알토가 설파한 ‘휴머니즘적 건축’이 행복도시 세종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국내 최초로 주민센터에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기능을 더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도입했습니다. 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이웃 간 소통의 장으로써 최근 대도시나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주민 단절과 고립에서 오는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개발단계와 생활권별 인구규모에 따라 총 22개소가 계획된 가운데 2012년 7월 2-3생활권(한솔동) 복컴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 현재까지 총 15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머지 7개소 중 2곳은 공사 중, 2곳은 설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남은 3개소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해밀동) 복합커뮤니티단지 조감도

**행정 · 문화 · 체육 · 복지 등 집약으로
“오며가며 만난 이웃” 주민소통 매개 역할**

행복도시의 최소 행정단위는 인구 2만에서 2만 5천 명의 기초생활권입니다. 총 16개의 이 기초생활권 각각에 복컴이 들어섭니다. 주민센터에 도서관, 시청각실, 음악실 등 문화시설과 실내체육관 같은 체육시설,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대여소), 유아 및 어린이열람실 등 보육시설과 노인문화센터, 노인교실 같은 노인시설까지 복합화했습니다.

인구 5만에서 10만 명 규모의 지역생활권 6개소에는 경찰지구대와 우체국, 119안전센터, 수영장까지 갖춘 복컴이 건립됩니다. 이 가운데 3-2생활권(보람동) 복컴 등 3개소는 현재 운영 중입니다. 생활권 중심부에서 인근 공원이나 놀이터, 학교 등과 연계되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교류의 한마당’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행복청은 고객지향적 관점에서 복컴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특히 2017년 ‘복컴 설계지침’ 제정과 2020년 전면 개정에 있어 주민 참여 TF를 구성하고 각종 회의와 공동연수를 개최하는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특화설계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건축물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선도적 도입

금년 4월 착공한 4-2생활권(집현동) 지역생활권 복컴은 설계단계부터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를 도입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 복컴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모토로 설계되었습니다. 밀집 · 밀폐 · 밀접의 3밀 건축요소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효과적인 설계기법들을 도입했습니다. 테라스나 발코니 같은 다양한 외부공간을 만들고, 이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분리하는 등 가능한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자연환기와 채광을 극대화하고 비접촉 설비기기와 항균능능 마감재 등도 사용했습니다.

뒤이어 5월 착공한 5-1생활권(합강동) 복검 역시 감염병 예방 특화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스마트시티 세종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5-1생활권에 입지해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설계에도 다양한 최첨단 스마트기술이 활용됩니다. 비접촉 엘리베이터, 언터치 키오스크, 자동차폐 윈도우, 건물 자동제어 시스템 등이 대표적입니다.

복검의 진화 ‘복합커뮤니티단지’, 복검에 학교, 공원 등 다양한 기능을 더하다

6-4생활권(해밀동) 복합커뮤니티단지는 효율적 공간이용과 통일성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복검과 학교, 공원 등을 통합설계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사례입니다. 단지 전체가 열린 구조로 설계된 이 ‘담장 없는 마을’은 모든 곳이 마당과 길로 순환하며 이어집니다. 또, 도서관과 체육관, 음악실, 다목적홀 같은 시설을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킨 형태가 5-2생활권(다솜동)에 들어서는 공공시설복합단지입니다. 복검, 학교, 공원이 결합된 복합커뮤니티 단지에 특화주거와 상가, 문화시설까지 더하여 통합설계를 추진중입니다. 주거와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연계하여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던 지역에서 계속하여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 다수 시설의 동시 시공에서 오는 시공간적 및 적기 준공문제를 원천방지하기 위해 통합설계를 넘어 통합발주와 시공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공모를 마친 상태로 2027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이외 독특한 디자인으로 건축물 스타일을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4-1생활권(반곡동) 복검의 경우 한글 자음 ‘ㅅ’과 ‘ㅈ’을 모티브로 건축하여 우리 ‘한(韓) 스타일’을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서 “행복도시 복검 벤치마킹하자” 잇달아.. 사용자 만족도도 ‘긍정적’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복검 건립과 운영사례는 포항시, 하남시, 예천군 등 이미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남가주대학(USC) 리스크 센터(Lusk Center for Real Estate) 리처드 그린 교수와 부동산개발 석사과정생 등 15명이 6-4생활권(해밀동) 복합커뮤니티단지 등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통합설계 방식은 공간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소통을 매개한다는 장점뿐 아니라 예산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공공시설 집약과 복합화로 부지 매입비는 물론, 건축 및 운영관리비용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에서 향후 신도시에 적용할 선진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호의적입니다. 행복청에서 실시한 복검 이용만족도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 2020년에는 93%, 2021년에는 96%에 달하는 주민이 ‘보통이상 만족’으로 응답했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확충하고,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며 “2030년까지 22개 복검이 모두 개관하면 시민들의 생활에 더욱 가까워지면서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아파트와 단독주택 장점만 모아서 "품격 높게, 엿지 있게" 블록형 단독주택이 뜬다

- 행복도시 단독주택 특화사업으로 다채로운 도시경관과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
- 아파트 '편의시설과 주민공동체' + 단독주택 '개성과 자율성' 살려

“충간소음, 벽간소음, 주차전쟁에 부실시공 문제까지...” 최근 아파트 거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양식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아파트에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이는 결코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면 모두 해결될 문제 같지만 그렇다고 섣뜻 이사를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지부터 건축, 관리까지 신경써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닌데다 아파트만큼 편의 시설이나 주민공동체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단점들은 과감히 털어내고 장점만 추리고 골라서 만든 주거형태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도시 세종에 조성 중인 단독주택 특화단지, 이른바 ‘블록형 단독주택’입니다. 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2014년부터 특색 있고 다채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블록마다 다양한 테마를 가진 ‘단독주택 특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여기에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주민공동체 형성을 돕는 지원시설까지 더하면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한옥마을, 유럽풍마을, 제로에너지마을 등 주제가 있는 마을 '여기 살기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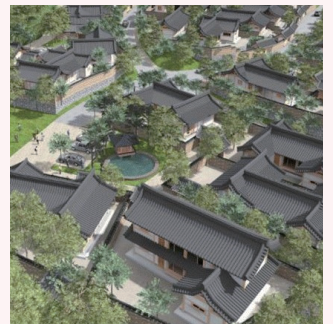
국내 대부분 신도시 단독주택단지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먼저 부지를 평탄화하고 일률적인 정(井)자 형태로 구획하여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건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의 형태나 크기는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성과 자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하거나 때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행복도시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이곳 단독주택 단지는 경사지나 기존마을 등 지형에 최대한 순응하면서 블록마다 고유의 테마를 부여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경관을 구현해냈습니다. 1-1생활권(고운동)의 한옥마을, 유럽풍마을, 제로에너지마을 등이 대표적입니다.

50세대 규모의 한옥마을은 한옥전문가를 MA(Master Architect, 총괄건축가)로 위촉하여 주거중심의 친환경 전통마을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5가구 내외의 소규모 블록이 군집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고운동) 한옥마을 조감도





(고운동) 유럽풍마을 조감도



(고운동) 제로에너지마을 조감도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 어귀와 안길, 셋길, 골목길 등 크고 작은 길들이 마을 곳곳을 휘감아 돌며 이웃 간 소통의 통로 역할도 담당합니다. 관광 중심의 전주 한옥마을과는 달리 실 거주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옥 특유의 목조구조와 기와지붕, 버선코 같은 처마 곡선과 낮은 돌담장 등 전통적인 마을경관이 밤낮으로 색다른 매력과 서정적 정취를 뽐내며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빼앗고 있습니다.

한편, 건너편에는 보족한 박공지붕의 단독주택이 늘어선 유럽풍 마을도 있습니다. 경사형 지붕과 지붕창, 색감 있는 수직덧창, 넉넉한 테라스와 발코니, 이웃과 바로 맞닿아있는 맞벽건축 등이 마치 유럽의 한 마을에 와 있는 듯 이국적 풍경을 자아냅니다. 인접한 고운뜰공원의 녹지와 레저 환경, 고운초등학교, 어린이공원, 시립도서관 등 쾌적한 정주여건과 보육환경으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의 인기가 높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제로에너지마을도 빠질 수 없습니다. 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 총 138세대에는 태양광패널, 열회수환기장치, 고효율창호 등 제로에너지 관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또 단지 내 풍부한 녹지공간과 보행중심의 생태순환 네트워크가 주민 간 건강한 교류와 소통을 돕는다는 평입니다.

이 밖에도 행복도시에는 개성 있는 단독주택 특화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6-4생활권(해밀동)에는 보행동선을 중심으로 자연, 마당, 커뮤니티 가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오솔길 숲마을', 단지 내 마당을 공유함으로써 이웃 간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공유마당마을' 등이 현재 설계 공모 및 기본구상을 마치고 건축인허가 등 후속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옥마을, 유럽풍마을, 제로에너지마을 등 주제가 있는 마을 '여기 살기 어때?'

개별적으로 건축되는 단독주택들이 개성적인 디자인은 물론, 통일성 있는 도시미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에 행복청 관계자는 "도시와 건축분야의 전문가를 MA(총괄건축가)로 위촉하여 사업의 출발점부터 마침표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MA의 역할은 먼저 대상지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해당 블록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과 차별화된 기능이 정해지면 도시건축조경교통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총괄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완성도 있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별 토지의 건축주가 특화계획을 준수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에는 약 1만 호의 단독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 윤진호 과장은 "단순히 도시디자인과 경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시설, 공원, 놀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공동주택에 버금가는 우수 정주여건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창출하여 주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높여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해밀동) 오솔길 숲마을 예시도



(해밀동) 공유마당마을 조감도



